

#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핵심역량 향상 분석 -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주

신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조교수

## Analysis on the Improvement of Core Competencies in the Operation of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Curriculum - Focusing on the Case of A University

Hye-Ju Lee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A대학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편한 교양교육과정을 역량 향상도로 분석하여 평가 및 환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020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A대학에서 개발한 교양교육과정 역량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역량별 대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분석은 기술통계,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통역량( $t=-9.839, p<.01$ ), 학습역량( $t=-4.707, p<.01$ ), 사고역량( $t=-9.992, p<.01$ ), 협력역량( $t=-2.061, p<.01$ )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눔역량( $t=-.550$ )은 향상되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량별 교과목 운영을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대학생, 역량기반교육, 교양교육, 교육과정, 성과분석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reformed liberal arts curriculum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of A University and use it as basic data for evaluation and feedback. To this end, students who took courses open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0 were surveyed using the liberal arts curriculum competency diagnosis tool developed by A Universit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communication ( $t=-9.839, p<.01$ ), learning ( $t=-4.707, p<.01$ ), thinking ( $t=-9.992, p<.01$ ), cooperation ( $t=-2.061, p<.01$ ) was significantly improved, and sharing ( $t=-.550$ ) was improved, but it wa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providing the basis for examining and judging the operation of subjects by competency.

Key Words : College student, Competency based education,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Performance analysi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Silla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Hye-ju Lee(hs9314@naver.com)

Received August 30,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24,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대학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여러 이유로 역량이라는 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고 있다. 역량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역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대학에서의 핵심역량에 관한 화두로서 등장한 것은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1]. 2010년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 선진 모델의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을 시작으로 하여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지원사업,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등 정부 주도의 대학교육과 역량 연계성 강화가 이어졌다.

이러한 사업이나 평가들은 각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 학사제도나 교수학습 지원체제 등의 혁신을 요구하였다. 특히 대학마다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성과지표를 제시하게 하여 핵심역량의 선정과 운영, 성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하였다[1-3]. 특히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핵심역량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교양교육과정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영역의 진단 내용은 “핵심역량 설정의 타당성, 핵심역량과 발전 계획 간 연계성,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 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 환류를 통한 교양 교과목 개선 및 보완의 적절성”으로 교양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4].

이후 대학 현장에서는 각 대학마다 비전과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역량에 따른 전공, 교양, 비교과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 이후, 개편된 결과에 대한 운영 실태, 성과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A대학 또한 마찬가지 실정이다. A대학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생성공 글로벌대학’이며,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목적은 A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문적, 직업

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이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A대학에서는 A학생성공 대학핵심역량(A Student Success 6 Competencies)을 설정하고 2018년부터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평가 준거와 같이 핵심역량에 따라 교양 교과목을 편성하였다면 실제 운영의 적절성과 환류를 통한 개선 및 보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개편된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평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염민호(2015)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자나 학교보다 대학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운영 원리가 전환된다고 하였다[5].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또한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대학생활 만족도나 학습자가 체험하는 경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 수준에 기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6]. 개편한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성과는 교양 교과 수강생의 만족도를 통해 운영 실태, 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대학들은 교양 수업을 수강한 학생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의 학업성취나 만족도만으로 교육과정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중요성 및 의미를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7]. 즉,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에 따라 교양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설계 모형 개발, 교양역량 진단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있으나,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진단하고 성과로 연결하고자 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3,8,10].

이러한 맥락에서 A대학은 비전 및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발전 전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역량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진단도구로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편과 운영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 만족도와는 별도로 역량별 대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향상 정도를 측정하여 교양교육 운영의 성과를 분석하는 하나의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역량중심 교양교육과정

최근 대학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 목표, 비전, 인재상, 교육과정, 교수학습 체제, 운영, 평가 등에서 역량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발전은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지만,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은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나타난다[9-10].

일반적으로 교양교육과정은 '자유로운 교과'와 '유용한 교과'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최근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의 유형은 자유로운 교과를 추구하는 학문중심 교양교육과정과 자유교육기반 교양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유용한 교과를 추구하는 직업교육중심 교양교육과정과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11].

앞서 역량이라는 범주에서 교양교육과정은 유용한 교과를 추구하는 직업교육중심 교양교육과정이나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업교육중심 교양교육과정은 대학교육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졸업생 취업률이 첫 번째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으로 활용되는 역량의 개념을 대학교육과정에 적용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12].

또 다른 측면에서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식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대안적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경희(2017)는 지식중심 교육과정이 가르쳐야 할 내용, 교과 그 자체에 주력하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경험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역량의 발달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13].

본 연구에서는 역량중심 교양교육과정을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요구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즉 백승수(2020)가 말하는 대학교육에서의 핵심역량을 기존의 학과나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생이라면 가져야 할 능력으로 지식, 기술, 태도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역량을 반영한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운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

### 2.2 A대학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A대학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학생성공 글로벌대학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핵심역량은 소통, 학습, 사고, 도전, 나눔, 협력으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량은 2~3개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통 역량은 의사소통, 대인관계, 글로벌, 학습 역량은 정보기술활용, 자기관리, 사고 역량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도전 역량은 창의성, 변화대처, 나눔 역량은 배려, 봉사, 협력역량은 리더십, 협업의 하위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교육의 비전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적 지성인 양성'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첫째, 세계화 및 다문화 시대가 요청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작용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며, 둘째, 자신에 대한 이해와 도구적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이고, 셋째,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책임감을 형성하여, 공감 능력과 공동체적 협력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첫 번째 교육목표와 관련된 A대학 핵심역량은 소통, 학습 역량이며, 두 번째 교육목표와 관련된 핵심역량은 사고, 도전 역량이며, 세 번째 교육목표와 관련된 역량은 나눔과 협력역량이다.

기초필수교양은 세계화 영역, 실용화 영역, 인간화 영역으로 나뉘며, 이는 A대학 인재상과도 연동된다. 선택교양은 일반영역과 브릿지 영역으로 나뉘며, 일반영역은 화랑교양과 자유교양으로 구분된다. 우선 화랑교양은 핵심역량별(소통, 학습, 사고, 도전, 나눔, 협력)로 교과목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유교양은 학문 분야(인문과 예술, 사회와 경제, 과학과 기술, 융복합)별로 구분되어 있다. 브릿지 영역은 단위 학과별 기초 전공과 교양의 교집합 수준의 교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설문조사 대상은 2020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SEP I, II, 인생설계프로젝트, 비판창의적 사고, 사회트렌드세미나, 의사소통과 공감, A리더십을 수강한 학생이며, 교과목별로 성별, 소속 단과대학, 학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대상 교과목 선정은 A대학의 핵심역량에 따른 교

육과정 개편에 따라 필수기초교양 교과목 중심으로 역량별 대표 교과목으로 하였다. 핵심역량별 교양 교과목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선정한 교과목의 경우 1학년 필수기초 교양교과목을 중심으로 역량별 교육목표, 내용,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역량별 이와 관련한 6가지 핵심역량별 교과목 개요는 아래와 같다.

소통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SEP I, II로 영미 문화권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며, 수업 방식은 매주 내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를 각 1회씩 co-teaching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습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으로 인생설계프로젝트이다. 1학년 대상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교과목이며,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다양한 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취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생중심 활동 수업이다.

사고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비판창의적사고로 주어진 문제나 과제를 다양한 글쓰기, 토론, 실천, 추론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다.

도전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사회트렌드세미나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등 네 분야의 최신 트렌드 이슈에 대해 4명의 교수가 팀칭 방식대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팀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 해결을 통해 사회변화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이다.

나눔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의사소통과 공감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이다. 토론을 통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여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며, 발표, 질문법을 통해 공감적 자기표현의 방법을 연습하고 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협력 역량의 대표 교과목은 A리더십으로 다양한 리더십 유형을 학습하면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리더로서의 역량과 서로 상생하며 공동체 의식이 있는 배려있는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은 리더십의 개요와 여러 리더십의 종류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리더십 유형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이다.

### 3.2 조사도구

교양교육과정 운영 성과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조사 도구는 2019년에 개발한 A대학의 핵심역량(소통, 학습, 사고, 도전, 나눔, 협력) 진단도구이다.

본 진단도구는 전체 29문항(소통 7문항, 학습 5문항, 도전 4문항, 사고 4문항, 나눔 6문항, 협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 문항은 응답자가 해당 역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후 문항은 역량별 교양 교과목 수업을 듣고 난 후 해당 역량의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진단 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Cronbach  $\alpha$ )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양교육과정 성과와 관련하여 사전-사후, 핵심역량별로 나누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사전 문항에서는 소통 .885, 학습 .865, 도전 .810, 사고 .876, 나눔 .878, 협력 .905로 나타났으며, 사후 문항에서는 소통 .962, 학습 .955, 도전 .942, 사고 .955, 나눔 .965, 협력 .878로 나타났다. 신뢰도(Cronbach  $\alpha$ )는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 문항에서 사전보다 사후가 높게 나타났다.

핵심역량별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 간의 상관 관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역량별로 살펴보면 소통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85~.872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73~.794로 나타났다. 학습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타났다. 사고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타났다. 도전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타났다. 나눔 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497~.742로 나타났다. 협력 역량과 개별 문항들 간의 상관은 .793~.89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별 문항과 각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0학년도 2학기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과정 개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교과목 담당 교수의 협조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학생들의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응답시간이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본 조사는 KSDC DB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개인배경 변인과 관련하여 기술 통계 분석 및 9월, 12월 조사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기술통계

2020년 교양교육과정 운영 성과분석을 위해 조사된 결과의 역량별 개인배경별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ompetency	characteristics	pre-test		post-test		
		N	%	N	%	
communication	gender	male	154	42	57	33.9
		female	213	58	111	66.1
	grade	1	310	84.5	156	92.9
		2	10	2.7	1	0.6
		3	15	4.1	4	2.4
		4	32	8.7	7	4.2
total	367	100	168	100		
learning	gender	male	119	43.1	100	52.4
		female	157	56.9	91	47.6
	grade	1	275	99.6	186	97.4
		2	0	0	3	1.6
		3	1	0.4	0	0
		4	0	0	2	1.0
total	276	100	191	100		
thinking	gender	male	173	42	85	39.0
		female	239	58	133	61.0
	grade	1	3	0.7	1	0.5
		2	375	91.0	201	92.2
		3	19	4.6	9	4.1
		4	15	3.6	7	3.2
total	412	100	218	100		
challenge	gender	male	65	85.5	49	86.0

	female	11	14.5	8	14.0		
		1	70	92.1	55	96.5	
	grade	2	5	6.6	2	3.5	
		3	1	1.3	0	0	
	4	4학년	0	0	0	0	
total		76	100	57	100		
sharing	gender	male	177	43.3	111	42.4	
		female	232	56.7	151	57.6	
	grade	1	378	92.4	247	94.3	
		2	2	0.5	1	0.4	
		3	14	3.4	8	3.1	
		4	15	3.7	6	2.3	
	total		409	100	262	100	
	cooperation	gender	male	23	56.1	7	38.9
			female	18	43.9	11	61.1
grade		1	4	9.8	5	27.8	
		2	22	53.7	8	44.4	
		3	8	19.5	3	16.7	
		4	7	17.1	2	11.1	
total			41	100	18	100	

성과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pm 1.965$ 를 넘으면 .05 유의수준에서  $\pm 2.58$ 을 넘으면 .01 유의수준에서 정규성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왜도와 첨도 모두  $-1.239 \sim .362$  사이로 나타나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competency

competency	pre-test				post-test			
	M	SD	skewness	kurtosis	M	SD	skewness	kurtosis
communication	3.49	.687	.055	.052	4.12	.688	-.313	-.393
learning	3.48	.746	.362	-.197	3.86	.905	-.570	.273
thinking	3.38	.707	.126	.300	3.99	.765	-.511	.320
challenge	3.56	.639	.332	.087	4.07	.754	-.287	-.988
sharing	4.06	.551	-.022	-.267	4.09	.777	-.600	.363
cooperation	3.58	.852	.013	-.599	4.06	.688	.291	-1.238

### 4.2 역량별 차이 분석

역량별 대표 교양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9월(사전), 12월(사후)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3과 같다. 역량별로 살펴보면 소통역량은 'SEP I, II' 교과목 수강 후 향상( $t = -9.839, p < .01$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역량은 '인생설계프로젝트' 교과목 수강 후

( $t=-4.707, p<.01$ ) 향상되었고, 사고역량은 ‘비판창의적 사고’ 교과목 수강 후 ( $t=-9.992, p<.01$ )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 공감’ 수강 후 나눔역량( $t=-.550$ )이 향상되었으며, ‘A리더십’ 수강 후 협력역량( $t=-2.061, p<.01$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학습, 사고, 도전, 협력 역량은 9월과 12월에 조사한 결과 역량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눔 역량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test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tency

competency	period	M	SD	t
communication	pre	3.49	.690	-9.839**
	post	4.12	.690	
learning	pre	3.48	.750	-4.707**
	post	3.86	.900	
thinking	pre	3.38	.707	-9.992**
	post	3.99	.765	
challenge	pre	3.56	.640	-4.248**
	post	4.07	.754	
sharing	pre	4.06	.551	-.550
	post	4.09	.776	
cooperation	pre	3.59	.852	-2.061*
	post	4.06	.688	

\* $p<.05$ , \*\* $p<.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대학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개편한 교양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각 역량별 대표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역량 향상 정도를 측정하여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월 초, 12월 중순 2회에 걸친 조사 시점에 따른 역량별 향상 정도는 대표 교과목을 수강한 후 역량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교과목은 해당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A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을 반영한 대학핵심역량의 구성은 역량 간의 신뢰도 및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양 교과 이수를 통해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교양교육과정 교과목 맵핑 또한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역량별 향상 정도에서 나눔 역량을 제외한 소통, 학습, 사고, 도전, 협력 역량은 향상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눔 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과 공감 교과목의 내용이나 방법이 나눔 역량을 향상하는데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핵심역량별 하위 역량에 따른 교과목 질 관리까지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A대학의 비전, 인재상,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의 의미를 가시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으며,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역량 향상도를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는 강지혜, 이병길, 권승아(2019)가 말한 바와 같이 역량에 기반한 교육 목표, 내용, 학습, 평가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도구 개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역량 향상도 분석은 교양교육과정의 가시적인 성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배상훈 외(2017)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 교양기초교육 운영에 있어 중요성에 비해 실행도가 낮은 요인으로 질 관리 영역이 도출되었다는[16] 것은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질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양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전공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역량 향상 정도는 활용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전공, 교양, 비교과는 각각의 목적, 내용, 체제 구성의 특성이 있겠으나, 학교 전체의 성과 관리나 환류를 위한 동일한 기초 자료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핵심역량에 속해 있는 전공, 교양,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교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교육방법의 대안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와 비교과 연계 운영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최근 역량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현장 연구의 확산을 위해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역량별 대표 교과목 선정에 있어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눔 역량의 경우 향상되지 않은 문항이 나타난다는 것은 역량별 대표 교과목 수를 확대하거나 대표 교과목 선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별 교과목 중

에서 각 역량별 수치가 가장 높은 교과목 2~3개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표본 수를 늘려 교과목별 차이, 단과대학별 차이, 학년별 차이를 검증한다면 세밀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역량별 대표 교과목 운영 성과를 단순하게 사전-사후로 비교하였으나, 이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역량별 대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분석, 교육 내용, 교수-학습 활동, 평가 등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설정한 역량의 효과성, 성과 환류가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성과 관리는 교양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의 역량은 어느 하나의 활동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역량에 따른 성과 관리는 수업, 학과, 대학 전체 차원과 교양, 전공, 비교과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S. Paek. (2020).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Core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3), 11-23.  
DOI : 10.46392/JDC.2020.14.3.11
- [2] S. N. Son & I. Y. Kim & H. S. Song & J. S. Lee & Y. J. Choi. (2021).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Core Competencies in Highe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1), 11-30.  
DOI : 10.46392/JDC.2021.15.1.11
- [3] Y. K. Chung & Y. J. Jeong & K. S. Chung.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iberal Arts Competence Scale of I University for Balanced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2), 397-417.  
DOI : 10.46392/JDC.2019.13.2.397
- [4] Ministry of Edu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enter for Colleges Evaluation and Consulting. <https://uce.kedi.re.kr/boardList.do>
- [5] M. H. Yeom. (2015). Devising a Model of Developing Education Program for the First Year Students of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4), 359-388.  
DOI : 10.22553/JDC.2015.33.4.359
- [6] K. M. Chung & H. J. Yang & S. Y. Kim & E. J. Kim & H. K. Hong & B. H. Han. (2017). Competences, Satisfaction, and the Grade Point Average of the First-year College Students Influenced by Changes Made in the General Education Syste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1(2), 585-614.  
DOI : 10.46392/JDC.2017.11.2.585
- [7] S. Y. Lee & Y. H. Lee & H. B. Lee & K. E. Kim & N. R. Kim & S. Y. Byoun & J. Y. Shin & S. W. Oh & J. I. Lee. & T. H. Lee & J. M. Jung. (2020). *Performance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for student success*. Seoul : Hakjusa Publishing.  
<http://www.riss.kr/link?id=M15683189>
- [8] H. J. Park. (2018). A general education program planning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core competencies - The case of K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2), 65-87.  
<http://www.riss.kr/link?id=A105294462>
- [9] E. J. Im. (2007).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University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81-107.  
<http://www.riss.kr/link?id=A35501955>
- [10] H. G. Yoon & Y. H. Kim. (2019). A Case Study on the Education Curriculum by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Operation Cases of Education in D University. *Journal of Liberal Arts Education Studies*, 4(1), 63-98.  
<http://www.riss.kr/link?id=A106437746>
- [11] E. J. Kim. (2019). Analysis of Core Competency Change and Class Satisfaction by Undergraduate Curriculum Based on Core Competen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4), 69-78.  
<http://www.riss.kr/link?id=A106172700>
- [12] S. S. Paek. (2017). Search for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2), 13-51.  
DOI : 10.46392/JDC.2017.11.2.13
- [13] K. H. So. (2018). *Understanding curriculum*. Paju : Kyoyookbook Publishing.  
<http://www.riss.kr/link?id=M14482198>
- [14] J. P. Woo.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 Concept and Understanding*. Seoul : Hannarae Publishing.  
<http://www.riss.kr/link?id=M12642031>
- [15] J. H. Kang & B. K. Lee & S. A. Kwon. (2019). A Exploratory of Design Strategies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of the Educational Objective- Curriculum-Assessment Consortium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5(2), 527-549.  
<http://www.riss.kr/link?id=A106288773>
- [16] S. H. Bae & J. H. Park & S. I. Han & S. J. Hwang & G. R. Lee. (2017). The Model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eneral Education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407-442.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940>

이 혜 주(Hye-Ju Lee)

[상학원]



- 2006년 2월 : 경성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9년 8월 : 경성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신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조교수
- 관심분야 : 평생교육, HRD, 교양교육,

대학생 생활적응

· E-Mail : hs9314@naver.com